

전라감영 복원공사 준비절차 돌입

전주시, 실시설계 최종논의... 빠르면 내달 공사 추진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이 될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전주시는 전주도시혁신헌터에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화당 등 전라감영 복원건물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논의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곧바로 일감상사 및 원가심사, 전라북도의 설계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어서, 절차가 마무리 되는 오는 4월부터는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2018년 10월까지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추진된다.

특히, 시는 선화당과 내아, 관풍각, 연신당, 행락재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과 함께, 통일신라시대부터 1951년 준공된 구전라북도청사의 흔적도 볼 수 있도록 전라감영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복원될 건물의 위치가 발굴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각종 고지도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했다.

또, 선화당 등 복원될 건물의 형태 등이 전라도 지역의 건축 형태 등을 담아내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통일신라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흔적을 어떻게 조성해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복원될 건물 활용의 구체적인 방향과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박제된 공간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시와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그간 전라감영 복원 건물의 실시설계 안에 대해 실무위원회 및 고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꾸준한 논의를 거쳐 왔다.

또, 구도청사 건물 철거 이후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의 흔적과 각종 고지도 및 문헌의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원형을 찾는 작업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전라감영 복원의 시점을 19세기로 정하고, 전라감영 공간의 변화에 따른 각 건물별 위치와 시대

에 따라 변화는 건물의 형태, 현존하는 타 감영 건물과의 비교 등을 통해 복원될 전라감영 건물의 뼈대를 완성했다.

박화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전라감영 복원은 단순히 건물의 외형적 복원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므로 고건축 및 역사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최대한 복원시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주력했다"라며 "앞으로 전라감영 복원공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복원공사의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공개 및 답사 등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제2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재운 전주대학교 교수,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김민근 기자

전 여친 비방글 올린 30대 '벌금형'

전 여자친구의 지인 중 남자 68명 카카오톡 단톡방 초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한 뒤 "다들 조심하세요. 000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처럼 어정대리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란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전 여자친구는 지인들 사이에서 성적 대상으로 회화화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을 드러냈고, 이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전주시-수자원공사 협약 상황실 통한 모니터링 가능

전주시가 재난경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홍수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병재 K-water 금·영·섬권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예·경보시설과 재난 정보(강우, 강설, 수위, CCTV 등) 관측시설, 재난관리상황실 등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홍수통합관리사업 실시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water는 전주시



전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병재 K-water 금·영·섬권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개선하고, 실시간수문관측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홍수모니터링 기준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재난관측정보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인허가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업무와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 준공 후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혹시 모를 홍수 등 재난 발생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K-water의 물 관리 기술력과 경험을 도입한 재난 예·경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홍수 등 재난 관리·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정읍시 목조 주택서 화재... 4800만원 피해

24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산내면 김모(51)씨의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111.24㎡가 모두 타 4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씨는 가족들과 불이 번지기 전에 집을 빠져나와 다행히 화를 면했다. 경찰과 소방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택시 빼앗아 달아난 50대 만취 운전자 붙잡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40km 넘게 달아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혐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15분께 전주시 전동성당 앞에서 택시기사 B(63)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40km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택시에 올라탄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갑자기 B씨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런 폭행에 놀란 B씨가 택시에서 황급히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복 임실군 오수면 한 도로까지 40km 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가 택시를 운전하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추적하는 한편, 신속한 상황 전파로 도주로를 미리 차단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붙잡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공공시설물 '처리중' 보수안내 표찰 부착

전주시가 생활민원의 중복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수가 진행중인 각종 공공시설물에 '처리중' 보수안내 표찰을 부착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시민들이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과 120번 전화, 사이버민원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리요청 등 다양한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각종 생활민원인 중복 접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력 소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수중인 공공시설물에는 '처리중'이라는 안내표찰을



내걸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같은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중복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펼치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권역별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찰을 통해 생활민원의 최소화하고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 준비

전주시가 책 읽는 전주 구현과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2017년도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송천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2017년 전주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에는 총 70여명의 시민이 수강을 신청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

회의 교육을 받게 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영유아발달이해 및 그림책심리학 △엄마랑 아기의 그림책 소통법 △책 놀이 체험활동 등이다.

교육을 수료한 자원활동가들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주 11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생애 첫 도서관이야기 사업에 참여해 6~24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책 놀이 활동과 육아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